

불자 세상보기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대표하는 소통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App)들이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영어불교 교재인 '헬로우 달마스쿨'이 배포된 데 이어 '반아심경 독송' 앱들도 개발되었다. 또한 전국의 사찰 정보를 검색하고 법회 실황을 볼 수도 있는 '야단법석'도 관심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전과 불교 음악 관련 앱들도 소개되고 있다. 수원 봉녕사에서는 사찰을 소개하는 앱을 직접 제작하여 영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불교 응용프로그램들은 불자들의 실행 활동과 포교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 생활화되고 있다. 때문에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 사용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손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과 같다. 문자, 소리, 사진, 동영상 등 어떤 정보도 손쉽게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은 정보의 세계화, 소통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보매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 관점에서 보면 '세계(世界)'라는 용어는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와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전파되고, 공간적으로도 어디든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세계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불교사상이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

락세계이다. 무량수불은 시간적으로 영원함을 말하고, 무량광불은 공간적으로 무한함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사무량심을 상징화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정보이용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 제공과 공유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진실과 진리가 묻혀버리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잘못된 정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 정보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쉽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고도정보사회의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임에 중독되는 청소년들, 전화가 없이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강박 증세의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폭력적 언어사용과 비도덕적 행위들, 심지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 약행들도 부수적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계에서 각종 어플리

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덕행과 지혜행을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불행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거센 물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불교 앱들은 쓰레기로 오염된 정보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 그리고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인성의 참다운 법연이 형성될 수 있는 많은 스마트 앱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초기에 개발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정보의 양도 축적하여 흥미와 관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교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社說

여법한 '총림 만들기' 속의 필요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조계종 중앙총회 제192차 정기회에서 총림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와 더불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계종 종헌과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은 종합수행도량의 의미를 가진다. 선원,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전문대학원), 염불원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림 지정 확대 움직임을 승가교육 발전과 교구본사 주지 선거로 빚어지는 내용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타종교의 교세 확장에 맞서 지역 종교 내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기에도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계 일각에서는 총림 지정 확대 움직임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 조계종 총무부가 파악한 기존 5대 총림 운영현황에 따르면 이들 모두 염불원이 운

영되지 않고 있으며, 덕숭총림 수덕사의 경우 율원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새로 지정된 3개 총림도 다르지 않다. 총림의 모든 실권을 가진 방장 스님에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년 3월 총회에서 개정될 총림법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1월 7일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개최한 7차 야단법석에서 "총림의 방장이 주지 후보추천권을 가짐으로서 사중 내 이해관계에 얽히릴 우려가 크다"며 "방장이 이해관계에 얽히면 공부하는 스님을 모시지 못한다. 방장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총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림 지정 확대'라는 주사위는 이미 굴러갔다. 이제에 현대 사회에서 총림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종단적 논의와 이에 따른 정립이 필요하다.

공명 선거와 불교특보들의 활약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다. 그래서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의 대부분이 대통령 선거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과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들도 깨끗하고 바른 선거실현과 국민의 선거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자승)는 11월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며,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간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어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선거에 동참할 것과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당·후보자 정

책·공약을 세심히 살펴 결정할 것, 선거법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가질 것도 주문했다. 지금 세 대통령후보 캠프에는 불교특보라는 직책을 맡아 불교계 인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과 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불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성실성을 갖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뛰느냐에 따라 당선 뒤 불교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가가 판가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불교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단순히 대선캠프의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뛰는 자부심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바로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마음 말이다.

발언대

경산시가 10월 29일 팔공산 선본사가 연등을 달기 위해 설치한 가설물을 두고 불법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팔공산 갖바위 참배장 내 연등을 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는 것, 이에 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철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 있어야”

팔공산 갖바위는 성보이자 불교 문화재다. 매년 설치해왔던 연등 시설물을 돌연 불법으로 규정해 배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불자들이 불교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배는 물론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갖바위는 불교계 대표적인 성보이자 문화재라는 점에서 충분히 불자들이 그곳에서 종교활동을 할 이유가 있으며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임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전제해야 할 것은 문화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기 불교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외부 연등 설치 자체 기준 만들자”

경산시가 10월 29일 팔공산 선본사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인 것이 맞다. 하지만 불교계도 냉철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내에 연등을 달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노천에 있는 마애불이나 석탑, 부도 등에는 외경을 생각해 가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연등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인 만큼 더욱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내장사 대웅전 화재 사고에서도 끊임없이 아크가 발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크가 발생했을 시 누전장치는 별 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는 불교계 내부적으로 외부 연등 등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성보 문화재가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종교적 예경 공간을 바로 살릴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제23의 내장사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황경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경산시 행정조직 국민 공분 살 것”

경산 선본사 갖바위는 연참배객 700만 명이 찾는 기도처이다. 이들이 모두 불자일까. 갖바위를 참배하는 이들의 구성은 무종교인들부터 기독교인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불교를 넘어 갖바위에 초를 올리고 기도하고 등을 달며 각자 소원을 남긴다. 경산시가 매년 선본사에서 설치해 온 갖바위 등 구조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그 배경과 이유가 오히려 의아해지는 부분이다. 당장 경산시에만 가보아도 불법광고 등 불법가설물이 넘쳐난다. 참배객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루만지는 것은 국민안녕을 기하는 또 다른 일이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경산시의 조치는 종교편향의 의혹마저 지니게 한다. 수 년간 설치돼 온 연등구조물을 제거하라는 그 처의가 심히 궁금하다. 갖바위를 관리하는 선본사와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노마저 일으키게 한다. 과도한 법 해석에 의한 행정조직, 충분한 소통이 없는 이번 경산시의 행위는 불자를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 이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이재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